

## 학생회비 납부 이전 선택사항

### 이번학기부터 등록금에서 분리 고지 침체된 학생회 재정적 위기 우려

이번 학기 학생회비가 등록금에서 분리돼 고지됐다. 그동안 등록금에 포함돼 의무사항이었던 학생회비 납부가 이제는 선택사항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학생회비 납부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앞으로 등록금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학생회비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늘어가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등록금과 함께 학생회비를 걷는 행위가 법적 근거 없는 불법행위라는 교육부의 경고 조치를 받아들여 시행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대학들도 비슷하지만 - 고려대도 이번 학기부터 학생회비 분리고지를 시행했으며 중앙대, 한양대 등 대부분의 대

학들이 학생회비를 등록금에서 분리고지 하고 있다 - 학생회비 납부율이 예년보다 낮아 집적으로 예상돼 어느 때보다도 침체돼 있는 학생회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37대 총학생회 구성이 실패한 후로 총학생회는 단과대학생회장단으로 꾸려진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됐다. 따라서 각 단과대를 결집시키는 중심점인 총학생회 부재로 인해 지난 1학기 학생회 활동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구분훈(국교4)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총학생회가 부재해 그동안 학교

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했다"며 "지난학기 학교에 등록금 인상 요인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총학생회 부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총학생회 필요성을 역설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국제학과 폐지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중앙도서관 앞에서 한 달 여간 천막농성을 진행했던 이상빈(국제4) 군은 "총학생회가 있었다면 국제학과 폐지 반대운동도 더 많은 학생들의 지지와 참여 아래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아쉬워했다. 박선희(행정3) 양도 "올해에도 등록금이 7%로 올랐는데, 인상이니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럴 때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식 대표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총학생회가 정치적 상황을 피는 것에 반대하며 총학생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 관계자는 "우리들의 역량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정치적 사안을 학내사안보다 중요시했던 적은 없었다"며 2학기에는 △백상예술제전 △등록금 인상 요인 설명회 등 학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06년 개교 100주년을 맞아 학교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중이지만 학생회의 참여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학교와 학생회, 이제는 서로를 배격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함께 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100주년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검은 자본 밝혀라 ... 삼성X파일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문화제가 지난 9일 저녁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0여명이 참가해 '이건희 구속, X파일 공개' 등을 외쳤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 지난 3월 학칙변경 성적경고기준 상향

지난 3월에 개정된 학칙변경 사항을 아직까지 많은 학생들이 모르고 있어 학사행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학칙변경의 주요내용은 우선, 성적경고 기준이 매 학기말 성적 평균점수 2.0미만인자로 변경됐다. 이는 성적 기준이 평점평균 1.5에서 2.0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또한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성적경고 통산 3회시 제적처리 된다. 하지만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성적경고 연속3회 및 통산 4회시 제적된다. 재입학 신청요건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학사징계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2년이상'이 경과한 후 1회에 한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제적일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한 후 1회에 한해서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재입학 제한 조치도 강화됐다. 앞으로 학사징계 누적으로 제적되었다가 2005년 3월 1일부터 재입학한 학생이 다시 매 학기말 성적경고 학사경고를 받으면 영구 제적된다. 즉 재입학 불가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성적경고 기준과 재입학 신청요건이 강화된 것을 유념해 학생들은 자기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축구부, 결승 진출

전국주계대학연맹전 출전한 우리학교 축구부(감독=김용해)가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은 오늘(12일) 오후 2시 강원도 양구종합

운동장에서 열리며 우리학교는 광운대를 1:0으로 꺾고 올라운 승실대와 맞붙는다. 이와 관련해 체육부 권우성 과장

은 "실질적인 결승전이라 할 수 있는 건국대와의 경기를 이긴 만큼 승실대와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6강부터 토너먼트로 진행된 전국주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우리학교 축구부는 16강전에서 영남대에 3:2로 승리했으며, 8강전에서는

조대대를 2:0로 이겼다. 지난 토요일에 열린 건국대와의 4강전은 접전을 거친 끝에 승부차기에서 4:2로 이겨 결승전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날 경기의 수훈선수는 두골을 기록한 박희도 선수와 승부차기에서 두번 상대의 슛을 선방한 골키퍼 박지훈 선수이다.

### 종합기획 4. 환경분야 ② 복지시설

## 학내복지시설 다양한 변화 필요

우리 신문은 건학 100주년을 1년 여 앞두고 우리학교 전반적인 시스템을 크게 4개 분야로 구분해 평가해 온 '동국을 종합 진단한다' 종합기획을 11회에 걸쳐 연재했다. 이번 환경분야 두 번째 복지환경을 끝으로 연재를 마감하며 다음호부터는 새로운 단기획이 종합보도면에 실릴 예정이다.

우리학교 복지매장이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학생들의 '입맛'을 잡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복지매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에 의존하기보다는, 서비스나 간편한 외부매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매장을 관리하는 생활협동조합(이사장=송일호·경제학, 이하 생협)도 지난해부터 커피전문점 '로즈버드'를 임대 운영하고, 사진관은 디지털카메라 인화기를 들이는 등 구성원들의 발길을 잡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매장을 보면 이용이 가장 많은 곳은 학교 식당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학생들의 이용이 점점 줄고 있다. 지난 2003년도와 비교했을 때, 상록원은 하루 평균 800명의 이용객이 감소했다. 상록원 2층 학생식당은 점심시간(12시~1시)에 1천 700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한다. 하지만 좌석은 400개밖에 없어 식판 들고 방황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는 등 공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 사람의 식사시간을 10분으로 계산할 때, 1시간동안 한자리를 이용하는 학생 수는 5~6명이다. 동국관 식당도 불교대와 법대 이전으로 하루 3000명이 줄었지만 복잡한 것은 여전하다. 이와 관련해 최혜진(행정3) 양은 "복잡하고 불편하게 식사하는 것보다 돈을 조금 더 지불하고 맛과 서비스 좋은 학교 밖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서점 이용률은 학기가 시작되는 3, 9월에 1년 매출의 8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활발하다. 하지만 남은 10개월 동안 매출이 20%라고 한다면 사실상 평소 학생들의 이용은 거의 없는 편이다. 수업교재를 제외한 여학이나 일반서적은 10%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윤아(신상3) 양은 "책을 구입할 때 저렴하고 집까지 배달해주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다"며 "학교서점도 인터넷 쇼핑몰과 같이 책을 구입하고 학과로 배달된다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활 이재욱 팀장은 "문구점 등 여러 매장을 외부업체와 거래선을 다양화시켜 할인폭을 늘릴 것"이라며 "늘어난 판매수익은 학생들의 복지개선 향상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 칭찬합시다

우리신문은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내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칭찬합시다'를 기획 연재한다.

⑩ 함께사는 사회의 미덕 실천하는 장학담당 김미경 직원

지난 학기 초 우리학교 행정조직개편이 단행되면서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을 비롯해 모든 부서의 업무량이 늘어났다. 꽃다발보다 바위틈에서 자라난 꽃 향송이가 더 아름답듯,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자신의 매력을 더욱 발산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열 한번째 '칭찬합시다' 주인공 장학담당 김미경 직원이다. 칭찬받을 자격이 안 된다며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하는 그를 어렵사리 만났지만 앞에서 만났다. 장희숙 조교(열번째 칭찬합시다 주인공)는 그를 친누나처럼 인생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모두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지쳐있을 때는 웃음을 주기도 하는 산소 같은 사람이라고 칭찬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학생복지실에서 근무하기 전에 경영대학 행정지원실에서 장 조교와 함께 근무했어. 누구나 다 힘들고 바쁠 때, 동료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니 무척 속스럽네요"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학생복지실에서 근무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됐다는 그는 가끔 감정적으로 말을 하는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자신도 덩달아 그 학생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한다. 또한 그럴수록 철저한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그동안 반성도 많이 했다고 말한다. 학생들과 밀접한 부서인 학생복지실에서 일하는 만큼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많다. "무엇보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도록 학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싶어요"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밝은 동국의 미래를 볼 수 있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 동대신문 기획광고

## 궁금하면 오십시오

발전기금 060-700-0119

### 동대신문사 47기 수습기자 모집

모집인원 ○○명  
응시자격 1학년 재학생  
원서접수 9월 13일(화) 오후 5시까지  
전형일시 9월 13일(화) 오후 6시  
원서교부 중앙도서관 옆 V동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문의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02) 2260-3491~2

동대신문사

단기 기획 학교·교수회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② 교수회

# 교수 개인보다 학교 전체 발전 생각해야

올해 교수회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지난 3월 소집한 '교권 수호 등을 위한 비상교수총회'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성명서를 발표해 학교에서 진행한 일련의 제도 개정에 관한 교수회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만 해도 총장 불신임을 안건으로 하는 서울·경주 합동 교수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총회 날짜를 하루 앞두고 학교와 협상이 타결돼 정기총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그동안 교수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살펴보면, 주요내용은 학교에서 추진했던 △연구지원제도 및 연구업적평가제도 △교육업적평가 및 보상제도 △정년보장교원 호봉승급제한제도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모든 제도가 교수를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교수회가 교수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

지만 문제는 교수 개인의 입장을 학교 전체의 발전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데 있다. 특히 정년보장교원 호봉승급제한 제도의 경우, 정년보장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학교를 제외한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미

**“교수들 의견 학교에 적극 개진” VS “교수와 학교 입장에서 극단적으로 물고 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물론 학교에서 추진하는 제도변경이 완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수회가 학교에서 시행한 제도변경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교수회도 도입취지에는 동감하는 제도의 시행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옳

지 못하다. 또한 학교가 대화로서 교수들의 참여의식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데 있다. 몇몇 교수들이 담합 형태로 교육평가제도에 불참한 것은 교수들 역시 학교와 대화하는 것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듯 학교·교수회간 갈등은 어느 한 쪽만의 잘못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 손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두 주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올해가 우리학교에게 중요한 시기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인 만큼 학교와 교수회가 학교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아래 서로 믿고 힘을 합쳐 난국을 이겨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교수는 “교수처우, 연구환경 등 복지부문을 개선하는 데 좀 더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교수회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 또한 문과대의 불참한 것은 교수들 역시 학교와 대화하는 것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듯 학교·교수회간 갈등은 어느 한 쪽만의 잘못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 손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두 주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올해가 우리학교에게 중요한 시기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인 만큼 학교와 교수회가 학교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아래 서로 믿고 힘을 합쳐 난국을 이겨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 회전무대

### 그들만의 기준

○...지난주 수강정정 기간동안 강의 추가신청을 하려면 교과과의 허락을 받아야했다는데, 알아본즉 학생들이 교수의 양해를 구해 교과과에 제출하는 강의 추가신청원 접수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최

교과과와 교수들이 사전에 협의해 최대 수강신청인원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추가수강신청,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집니까?!”

### 공급불편

○...개강날 새벽 중앙도서관 앞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뜬눈으로 아침해가 밝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데, 이유인즉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만해관 사물함 사용 신청을 지키지 못한 학생들이 새벽잠도 잊은 채 줄지어 대기한 것이라고.

사물함 사용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현 사물함 개수가 모자라만큼 사물함 설치 예산을 늘리고 이용율이 낮은 단기용 사물함을 장기용 사물함으로 용도변경해야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턱없는 공급, 넘치는 수요, 지금은 사물함 호황시대?!”

### 양심보관소

○...생활학생위원회에는 주인 잃은 신분증이 쌓여있었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우선시 생활학생위원회에서 신분증을 보관하고 대여해주는 ‘양심우산’ 회수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이제는 빌려간 양심우산을 반납하고 나의 양심을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오후 한때 동국인의 양심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만해호프

○...우리학교 만해광장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링핀들이 세워져 있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늦게까지 만해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학생들이 뒷정리를 하지 않아 술병들이 버려져 있는 것이라고.

만해광장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술을 마셨다면 뒷정리는 깨끗이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술병을 불링핀 삼고 농구공을 불링공 삼아 불링 한판 할까요?!”

### 수강신청, 어떻게 변화했나

## 200 여 개 강좌 늘어나 대체로 긍정적 평가 ... 교양 개선 필요

학기 초마다 매년 전쟁을 치르듯 이뤄졌던 수강신청이 이번 2005년도 2학기 때부터 한결 수월해졌다. 이는 강좌 수 증대와 함께 주전공과 복수전공을 분리한 수강신청 방법 변경으로 이뤄낸 결과이다.

먼저 강좌 수 증대는 수강신청 시 특히 학생들의 수요가 많아 문제가 됐던 강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 학기 총 강좌 수는 약 1,950개로서 지난해 2학기 총 강좌 수 1,771개와 비교해 볼 때 약 200여개의 강좌가 늘어났다.

이처럼 강의 수 증대가 가능했던 이유는 동국관 공간 재배치로 인한 강의실 수 증가와 과단과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격한 강좌 수 증가에 따라 시간강사 강의를 맡는 경우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전임교원의 비율이 감소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전체학생 수가 비숙한 경희대의 경우 총 강좌 수가 2,500개로 우리학교를 훨씬 앞서고 있어 앞으로는 강좌 수를 꾸준히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강신청의 가장 큰 변화는 주전공과 복수전공을 분리해 진행한 점이다. 주전공과 신청기간에는 전공과목 전체인원의 70%를 모집하고, 복수전공과와 전체학년 신청기간에 나머지 30%를 모집했다. 이에 따라 복수전공자가 많아 주전공과도 전공 수업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경영학과, 신문방송학과 학생들도 대부분 이번에는 원만하게 수강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권순일(경영4) 군은 “지난학기와 달리 듣고 싶던 강의를 다 들을 수 있게 됐다”며 수강신청 방법의 변화에 만족을 나타냈다.

이처럼 전공강좌 수강신청으로 인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교양과목의 경우는 아직도 강좌 수가 많이 부족해 듣고 싶은 강의를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

물론 학생들이 일부 교양강좌만을 선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도 교양강좌 과목을 다양화하고 강좌 수도 증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2004학년도 2학기에 실시되었지만 총 참여 비율이 전체의 15.2%에 그쳐 효과를 얻지 못했던 사전수강신청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수강신청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사전에 각 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파악되면 이후 강좌를 개설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버의 개선도 필요하다. 건대의 경우 올해 서버의 확충으로 한달, 한시에 재학생 수강신청이 모두 이뤄졌다. 이는 5월에 걸쳐 이뤄지는 우리학교 수강신청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 개강대법회 오는 22일 열려

정각원(원장=이진열)이 주최하는 개강대법회가 오는 22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중강당에서 열린다. 정각원장인 진철원님이 직접 설법하는 이번 법회는 ‘세계평화를 위한 불교인의 사명’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 본교 인사 발령

지난 1일 충무로영상문화사업단과 통합인문학특성화사업단이 구성됨에 따라 겸직(겸임) 인사발령이 다음과 같이 단행됐다. △충무로영상문화사업단 기획사업팀장=김윤길 △통합인문학특성화사업단 기획사업팀=김영훈 △충무로영상문화사업단 기획사업팀=정경훈



새로운 1촌 ... 지난 8일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고체 표면의 유변학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일본 큐슈대 카자야마 피사토 총장의 강연회가 열렸다. 이는 우리학교와 큐슈대가 지매결연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이다. (연) brightah@dongguk.edu

## 물리학과 동창회, 장학금 전달 매칭펀드 제도로 장학금 20% 증액

물리학과 총동창회(회장=이원식)가 지난달 5일 후배사랑 장학금 6천 420만원을 학교에 전달했다. 후배사랑 장학금은 대외협력처와 학생복지실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캠페인으로서 각 학과·동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금을 학교에 기탁할 경우 20%(최고 2천

만원)에 해당하는 매칭펀드를 제공한다. 이에따라 물리학과 후배사랑 장학금 총 7천 704만원이 조성됐으며 이자분의 70%가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물리학과 후배사랑 장학금은 내년부터 물리학과에서 선발된 2,3학년 학생 한 명씩에게 전달된다.

## 다향관 문구점 직영기념 이벤트 개강 맞아 매점 할인행사 실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송일호·경제학, 이하 생협)이 이번 학기부터 다향관 문구점을 직영하게 되면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교내 자판기에서 문구 교환권이 부

록 하는 이벤트이다. 행사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총 330만원 상당의 1천원, 2천원, 3천원 문구 교환권이 음료수에 부착돼 있다. 한편 생협에서 운영하는 학내 매점들이 개강을 맞이하여 과자류·음료류를 할인하는 행사를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

## 지난 7일 동국포럼 결성

### 모교사랑·지식 나눔의 장 될 터

우리학교 전통을 계승하여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인큐를 위해 봉사할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한 동국포럼이 지난 7일 결성됐다. 동국포럼은 역대 총동창회장이었던 정재철, 류근창, 황명수 동문이 동국포럼 공동추진위원을 맡아 구성했으며 동문들이 함께하는 △만남과 화합의 장 △모교사랑·후배 사랑의 장 △지식정보 나눔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국포럼은 앞으로

격월제로 포럼을 개최해 동문들간 정보교류가 보다 활발해지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제1회 동국포럼에서는 정재철 동문이 동국포럼 초대대표로 선임됐고 감사로는 김귀위 동문과 고남석 동문이 선임됐다. 또한 동국포럼 회칙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영담스님, 김병식(생명·화학공학부총장 등 학교인사와 1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 실전 모의면접

다음과 같이 2005년도 【실전모의면접】을 개최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1. 일 시 : 2005. 9. 23(금) 13:00 ~ 17:00
2. 장 소 : 본관 중강당
3. 면접인 :

성명	근무처	직위	비고
남경현	엘리트코리아	대표	
지세근	삼성전자 인사팀	차장	
황두연	롯데그룹 인사부	부장	
김영진	KTF 기업홍보팀	차장	
유정은	영어인터뷰 전문 컨설턴트	컨설턴트	

- 실전모의면접을 통한 면접능력의 배가
- 서류전형 시 인사지원서, 자기소개서의 채점기준 및 작성법 소개

4. 면접형태 : 개별면접, 압박면접, 토론면접, PT면접, 영어면접 후 단계별 강령 실시
5. 주 최 : 학생처 취업지원팀 (☎ 2260 - 3054 ~ 5)

## 실전 모의면접 대상자 모집

2006년 2월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실전모의면접】을 9월 23일(금) 개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의면접에 직접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일시 : 2005. 9. 8(목) ~ 9. 14(수)
2. 모집지역 : 4학년 취업예정자 누구나
3. 모집인원 : 18명 (남,여)
  - 개별면접 : 3명
  - 집단면접 I (압박면접) : 4명
  - 집단면접 II (토론면접) : 6명
  - 집단면접 III (PT면접) : 3명
  - 영어면접 : 2명
4. 접 수 처 : 본관2층 취업지원팀 (☎ 2260-3054 ~ 5)

\* 면접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문화상품권)을 지급합니다.

학 생 처

## 동국 락뮤직 동영상 시사회 DGU Power Live

동국 락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는 학내 구성원들과 락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학기부터 매주 화요일에 “외국 유명밴드의 라이브 공연실황”을 동영상으로 감상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장소 : 중앙도서관 AV실

- ♣ 제2회 : 9월 13일(화) 오후 6:00 프로그램 : Pink Floyd의 라이브 동영상 "Pulse"
- ♣ 제3회 : 9월 20일(화) 오후 6:00 프로그램 : Metallica / 모스크바 락페스티벌 공연실황 동영상
- ♣ 제4회 : 9월 27일(화) 오후 6:00 프로그램 : Eric Clapton / 하이드파크 공연실황 동영상

- ♣ 제1회 상영 내용 : 밴드 DIO의 "Spectrum Live"(전미투어 실황 동영상)

주 최 : 동국락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주 관 : 락동아리 피어리스 단

##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05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신청자격 : ①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을 필한 2005년도 2학기 재학생으로서, ② 총 취득학점이 급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③ 평점평균이 4.0이상(F성적 포함)이 될 수 있는 자로서, ④ 기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자.
2. 신청 기간 : 2005. 9. 20(화) ~ 9. 21(수)
3. 신청 장소 : 소속 단과대학 교과과(아간경과는 아간강좌 교과과)
4. 제출 서류 : 조기졸업 신청서(소정양식) 1부, 성적증명서 1부.
5. 기타 사항 : 가. 겨울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조기졸업이 가능한 자도 신청가능. 나. 편입학한 학생은 조기졸업 할수 없음. 다. 조기졸업에 실패하였을 때는 정규등록학기 전액등록을 해야 함.

교 무 처

## 수요일, 동국은 음악에 젖는다...

동국인의 감성지수를 높이기 위해 동국사랑 수요음악회를 열립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캠퍼스에 흠뻑 빠져봅시다!!

## 2005학년도 2학기 동국사랑 수요음악회

9월 14일(수) 12:00 중앙도서관

거문고 : 허윤정  
서울대학교, 서울대 대학원 졸업  
중요무형문화재 16호 거문고산조 이수자  
중앙대학교 출강, 솔리스트 앙상블 상사 동인

첼현금 : 유경화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졸업  
2002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  
솔리스트 앙상블 상사 동인

신조 병주 거문고 : 허윤정 첼현금 : 유경화  
거문고 독주 '소업산방' 작곡 : 황병기  
첼현금 독주 '명곡의 세' 작곡 : 유경화  
즉흥음악 '상상 자유' 구성 : 상상

주최 : 중앙도서관, 교육방송국, 동대신문사, 학생복지실



대학과 기업의 관계를 알아본다

# 대학서열화 조장하는 '기업기부금'

## 기업 "기업이미지 상승 및 우수인력확보 기대" 대학 "교육자원 확보 통해 경쟁력 제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고려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와 관련한 일부 학생들의 기습 시위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삼성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시위 이후의 대다수 일반 학생들의 반응이다. 학생들이 이 회장의 전공과는 개연성 없는 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 그곳의 경영자인 이 회장에 대해 시위했던 학생회를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지 대학과 기업은 뿔 떼어 뿔 수 없는 관계가 돼 버렸다. 일부에서는 기업과 사립대학이 자본주의의 두 축이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학의 경제적인 능력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기부금은 대학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오아시스'와도 같으며, 거액의 기부금을 통한 전반적인 교육자원 확보는 곧 대학 경쟁력의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 기획협력처의 한 관계자는 "기업은 사회 보호의 차원에서 대학에 기부금을 냈으므로 기업 이미지 상승의 효과도 기대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학 역시 동문이나 학부모 등

을 통해 기부 받는 금액은 소규모인 만큼 기업의 투자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업과 대학의 연결 고리가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거액의 기부금이 일부 상위 대학에만 한정되고 있어 대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기부금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기업 간의 인재와 자본의 교류라고 볼 수 있는 산학협력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한 일간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년간 전체 사립대의 기업 기부금 총액 중 상위 10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46.6%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산학협력 사업 역시 '이름 있는' 대학에 편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박겨용 교수는 "기업에서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입맛에 맞는 대학을 찾으려고 하는 만큼 대학의 서열화를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 모시기'에 한창이다. 서강대와 숭실대의 경우 전직 CEO 출신의 경영 마인드

를 갖춘 총장을 영입해 화제를 모았으며, 실제로 서강대 손병두 총장의 경우는 취임 후 한달만에 과거 2년치에 해당 하는 기부금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대학은 몇 년째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 모금이 전무한 현실이며, 기업과의 산학협력 역시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외협력처의 한 관계자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기업의 기부금을 끌어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에 백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지속적인 기부자가 될 수 있는 동문의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발전기금 모금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경제적인 능력이 곧 그 대학의 모든 경쟁력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재정적인 능력 못지않게 교수의 연구 결과와 학생들의 학습 능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대학의 재정적인 부분이 곧 학생과 교수의 교육, 연구 환경과 무관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업과 대학의 '애증'의 관계는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고려대의 삼성 이건희 회장 명예박사학위 수여 파문으로 대학과 기업의 관계에 대한 담론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대학 역시 이 주제와는 무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제시되고 있는 기업과 대학의 연결고리를 알아보고 기업이 대학에 투자하는 기부금과 이에 대한 대학들의 반응, 그 속의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 짚어보았다. 편집

# 대학 · 기업간 협력은 국가경쟁력 향상의 관건

## 기업기부금은 세계적 추세 ... 다양한 대학 기부로 인재발굴 힘써야

기업을 대하는 대학 구성원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학생들은 입학하면서부터 기업을 타도해야 할 적인양 반기업적 태도(특히 대기업에 대해)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막상 졸업이 가까워지면 대기업 취업 준비에 바쁘다.

교수나 교직원들은 기업에서 기부금을 받거나 연구비를 따낼 때는 친절한 태도를 보이다가도 돌아서면 기업인을 툼만 밝히는 속물 따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물론 기업의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대학이 배출한 우수한 졸업생을 쫓쫓 뺏아가는 등 과실을 따 먹는데만 급급했지 대학에 대한 투자나 기부는 '생색내기' 식으로 이익의 불과 몇 퍼센트

도 하지 않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학과 기업은 상생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한 쪽은 인력의 공급자이며 한 쪽은 그 수요자라는 측면에서 같이 가야 할 동반자이다. 대학이 우수한 인력을 배출해야 기업이 발전할 수 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대학도 기업의 투자, 기부 등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학생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외국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휴렛팩커드(HP)의 설립자 윌리엄 휴렛은 1966년 설립한 휴렛 재단을 통해 그동안 35억 달러를 출연해왔으며 이중 동업자이자 동창인 데이빗 팩커드와 모교인 스탠퍼드

대에 기부한 돈만 3억 달러가 넘는다. 빌 게이츠도 부인과 함께 세운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기부해온 220억 달러 중 상당액을 대학에 냈다.

지난 6월달엔 오라클의 창업자 래리 엘리스가 하버드대에 1억1천500만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업인들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하버드대의 2004년 현재 기부금 누적액은 226억달러(약 25조8천억원)에 달한다. 예일대가 110억 달러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스탠퍼드대(86억 달러), 프린스턴대(79억 달러) 등이 뒤를 잇는다.

그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이 된 배경에는 이런 막대한 기부금이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기부금 순위=명문대 순위'인 셈이다. 지난해만 해도 하버드대가 5억4천30만달러, 스탠퍼드대가 5억2천420만달러의 기부금을 새로 받았다.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이러한 대학과 기업간의 관계 속에서 기업의 대학에 대한 투자와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한 대학의 노력은 무엇보다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력양성'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대학과 기업이 이중적 관계 속에 서로 경원시하는 풍조가 계속된다면 우리에겐 미래도 없다. 대학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김현석 한국경제신문 교육부 출입기자

### 사설

## 어떻게 학생을 참여시킬 것인가

학생회비가 등록금에서 떨어져 나왔다. 학생회비를 내는 것에 의문점을 갖는 학생,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회비를 환불받는 수백 명의 학생도 이제는 볼 수 없다. 기존에 환불받던 학생부터 내는 것에 불만 없던 학생까지 학생회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학생 외에는 등록금 아래 붙은 고지서를 떼어낼 것이다.

서울대, 중앙대, 한양대 등 학생회비를 분리고지하는 다른 대학들은 50~60%의 납부율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학교도 예년에 비해 학생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부실이 예상된다. 대동제와 같은 큰 사업을 진행할 예산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학생회는 위기 중의 위기를 맞은 셈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추세를 반영했다. 그리고 학생회비를 고지하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교육부의 조치도 받아들였다. 학생들에게 자율선택권을 준 듯 하다. 하지만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는 분명히 줄어들었다. 이제 학교가 고민할 문제는 학생회도 침체된 상황에서 학생들을 학내사업에 참여시킬 방법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생회 사업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해서다. 학교와 학생간의 소통창구 하나 없는 지금 학생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학교정책 결정에 학생은 없는 것인가. 지금처럼 학생과 학교가 따로따로라면, 학교는 애교심 없이 강의만 듣는 학원으로 전락할 것이다. 학교도 결국 학생들의 외면을 피할 수 없다. 학기 시작이면 등록금 논의마다 '학생과 논의는 하지만 협상은 없다'고 말했던 학교다. 이 학교는 학생을 일괄적으로 공부만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다. 하지만 학교정책에 참여도, 비난도 없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궁금하다. 목소리를 대변할 조직이 없는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학교는 학생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학생회 건설을 도야야 한다. 학교경제조직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다. 학교 전체 발전을 위해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	김주연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주최	김세민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편집장	정경훈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기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집장	홍주상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 철도

## 정치·경제·사회 구조의 변혁 가져와



오는 18일은 '철도의 날'이다. 철도는 산업혁명과 같이 등장했다.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간생활 모든 부문에서 비약의 계기가 됐다. 이에 철도역사부터 현대까지 미치기 된 영향을 알아보자.

편집자

철도는 지구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효율성과 안정성에서 다른 수단을 능가한다.

철도가 18세기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증기기관에 이어 21세기에 다시 한번 르네상스를 맞을 것이라는 소리도 이 때문이다.

그 옛날 실�크로드를 따라 동서양을 오가던 대상(隊商)들이 이용했던 낙타의 평균 시속은 8마일이었다. 시속 20마일의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이륜마차가 등장한 것이 기원전 1600년쯤이었고 시속 100마일의 증기기관차가 나온 것은 1880년대였다. 시속 20마일에서 100마일까지 오는데 3천년 이상 걸린 셈이다.

1825년에 청년 디젤(Rudolf Diesel)에 의해서 최초로 등장한 증기기관차의 최고 속도는 겨우 13마일이었다. 스톡턴과 달링턴을 잇는 짧은 거리, 시속 10~20km에 불과한 느린 속도였지만 철도는 공간을 좁히고 시간을 단축시켜 근대 문명의 총아로 자리잡았다.

첫 증기기관차의 이름은 '여행'이라는 뜻의 '로코모션'이었다.

제작자 조지 스티븐슨은 1814년에 이미 '블루허호(號)'라는 최초의 기관차를 만든 적이 있으나 이것은 석탄을 광산 밖으로 실어 나르는 '무개 화차(無蓋火車)'였을 뿐 엄밀한 의미에서 철도 기관차라 아니었다.

1830년 9월에는 무역학 리버풀과 산

업혁명의 중심지 맨체스터 구간을 스티븐슨의 아들이 제작한 '로켓호'가 달림으로써 영국의 산업혁명은 완성단계에 접어들었고, 물류 수송에는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이후 프랑스(1832년) 독일(1835년) 오스트리아(1837년)로 철도가 보급됐으나 이들 국가들은 아직 산업혁명을 꽃피우지 못해 영국의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했다. 증기기관으로 대변되는 산업혁명은 전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증기기관의 발명이 모태가 되어 발달한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정보의 흐름도 날이 갈수록 빨라져서 이제는 전 지구촌이 정보 동시화시대에 살고 있다.

1865년, 런던 시민들이 링컨 암살소식을 들은 것은 12일 뒤였다. 그러나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피격사건 때 어느 영국 특파원이 이 소식을 들은 것은 런던 본사의 전화를 받고서였다.

피격현장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던 특파원보다 영국 본사가 먼저 알고 전화를 한 것이다.

철도의 발달에 의한 산업혁명은 단순히 경제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치적 사회구조도 크게 바꾸었다.

정치적 변화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산업부르주아지 발흥의 결과, 그때까지의 귀족·지주지배의 정치체제에 동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신중 산업부르주아지는 1832년의 선거법 개정을 쟁취함으로써 피선거권을 부여받았고, 한편으로 노동자계급도 성년남자에 대한 보통선거권을 요구하면서 차티스트운동(1838~48)을 통하여 하나로 뭉쳤다.

이러한 정치투쟁은 자본주의체제가 내부에 안고 있는 자본가와 임금노동자의 모순 대립과 뒤얽혀서 영국사회를 크게 뒤흔들었다.

19세기를 통하여 공업화는 영국으로부터 프랑스·독일·미국·러시아·일본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공업화를 민간의 자생적 노력으로 달성한 나라는 영국뿐이고, 후발 여러 나라의 공업화는 영국 기계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대량 유입을 막고 국내자본의 보호육성을 꾀하기 위한 보호관세정책을 취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 공업화정책에 힘입은 바가 컸다.

이리하여 세계경제는 철도를 기반으로 한 영국을 축으로 하는 여러 선진 공업국과 이에 종속적인 식민지적·반식민지적 여러 농업국으로 나뉘어, 이것들이 지배와 피수탈의 유기적인 관계로 결속된 세계자본주의로 재편성되었던 것이다.

최관 객원기자(경철학 석사과정) choikwan@dongguk.edu

###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 장자시 그 여섯

박제천

마른번개빛에 드러난 바다의 척추  
 희디희뻐 사이에 발을 딛고서  
 비를 맞네  
 하나하나의 빗방울 속에 들끓는  
 새들 8만 4천 八萬四千 가지새들이  
 일시에 날개를 펴 나를 나르네  
 용골(龍骨)을 돌린 뒤의  
 물이랑으로.

- 박제천 시전집 1권 (2005년 문학아카데미)

1975년에 나온 시인의 첫 시집 '장자시'의 한 편이다. 마른 번개와 치고 바다의 풍랑이 거세게 이는 풍경 이미지가 기이하다.

흰 파도 사이에 발을 딛고서 말갭기를 때리듯이, 비를 맞고 있는 시인은 의기양양하여 우주의 섭리를 꿰뚫어 나갈 듯하다. 그의 도저한 동양적 정신주의가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시인은 비를 맞으며 자연의 빗방울 속에 들끓고 있는 인간의 8만 4천 가지 번뇌를 온몸으로 읽어내며 고통스러워 한다. 탐(貪: 욕심)·진(瞋: 성냄)·치(癡: 어리석음)·만(慢: 거만)·의(疑: 의심)·견(見: 사뉘는 소견)으로 시작하여, 8만 3천 개의 번뇌들에 짓눌리어, 이제 더는 물이랑을 탈 수 없을 것 같다.

여기서 시인은 장자의 사유를 이용하여, 8만 4천 가지 번뇌(인간 삶의 실존적 유한성(有涯))를 극복할 것이 아니라, 번뇌를 긍정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 사이에 놓인 엄청난 틈(번뇌)까지 긍정하고 심연(교동)을 건너가려고 모색한다.

만물 유전의 법칙에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8만 4천 가지 고통에 스스로를 내맡김으로써 천의무봉하게 건너가고자 하는 것이다.

용골을 돌린 뒤의 물이랑에 경쾌하게 나를 맡기고...

강상윤  
 시인, 동국문학인회 사무국장

# 철도 발전으로 살펴 본 각국의 역사

## 유럽연합 건설에서 우리나라 통일시대 역할의 중추

인간의 이동방법과 수단은 바퀴의 발명을 기점으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졌다. 그리고 바퀴는 보다 효율적인 이송의 방법을 고민하게 하였고, 인간과 가족의 힘을 벗어나 기계적 원동력을 찾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산업혁명이 증기기관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증기기관을 동력삼은 철도는 유럽의 산업혁명을 세계로 나아가게 하였다. 19세기에 최초의 철도가 부설된 이후에 유럽은 국가별로 철도산업의 기술과 운영체계가 발전되어 왔다.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이 운영체계에 기술상에 있어서 국가별 차이가 크게 없는 것과 비교하면 현재 유럽은 단일 시장체제로의 출범에 의해 철도산업의 환경이 바뀌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0년을 목표로 유럽대륙 차원의 고속철도 발전계획을 1990년에 수립하고, 이것이 유럽연합건설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의 대륙을 누빌 철도는 하나의 유럽을 상징할 것이고 지금까지의 타운송수단과의 한계는 경쟁관계에서 있었던 유럽의 철도 산업은 부흥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영국 기술자에 의해 1872년에 시작된 일본의 철도는 기간산업으로 꾸준한 투자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운행거리당 사고건수로 일본을 철도왕국으로 만들었다.

초기에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시작된 철도 건설과 지속된 기술개발은 1920년대에 철도기술에 있어서 유럽과 대등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고, 축적된 기술력은 당시에 일본이 자행한 식민지 수탈의 도구로서 조선을 시작으로 동북아시아에 철도를 건설하게 이르렀다.



▲ 초기의 증기기관차.



▲ 멕시코의 리베로.



▲ 일본의 신칸센.

패망이후 1950년대 이후에 국가경제가 서서히 회복되었을 때 철도산업 부흥을 위해 주요 철도노선의 에너지원을 전기로 하는 전철화를 시켰고, 인구 밀집지역인 도쿄와 신오사카와의 구간에서 시속 200km 이상의 신칸센을 건설하였다. 이후 국유철도 경영의 방만한 운영과 합리적 경영을 무시한 투자남발로 재정적자를 겪던 일본국유철도는 1987년 그때까지 유례가 없는 분할 민영화를 택하여 철도산업 운영에의 새로운 도약을 맞이했다.

현재의 차륜방식으로 운행하는 상업용 철도는 최고 시속 300km 내외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도전은 소음과 진동이 적고, 기후조건에 영향을 덜 받으며, 보수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자기부상열차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다. 1979년 무인 실험차량으로 시속 217km를, 그리고 1999년 4월 14일에는 유인으로 시속 522km를 기록하였다. 자

기부상열차는 운행시 저공해 발생으로 환경상의 이익이 존재한다. 그러나 엄청난 건설비와 많은 에너지소비량에 따른 기술보완은 실용화 단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899년 9월 18일 노랑진에서 제철포까지의 철도는 우리나라의 철도산업의 시작이었다. 일본에 의해 추진된 철도는 조선에 근대문명의 시혜를 베푸는 선진으로 사용되었지만 조선민중에게는 수탈의 도구였다.

조선의 철도부설권을 장악한 일본은 철도를 식민지침탈의 초석으로 삼고,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 곳곳에 철도를 건설하며 식민지주민의 반출과 식민지배를 위한 무기와 군 인력을 수송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6·25전쟁을 치루며 크게 폐쇄한 철도산업은 1960년대 경제 개발기에 함께 변화의 모습을 보였지만, 고속도로건설과 자동차산업의 발전으로 철도시설에 대한 만성적인 투자부족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200km 이상의 장거리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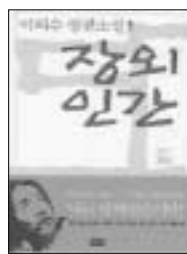
간에서의 여객분담률이 철도선진국에 비해 크게 밀리며 철도의 이점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1992년 경부고속철도 사업이 착공이 되면서 우리나라 철도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과 연구가 모아졌고, 현재의 상용화된 고속철도는 철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Door to door로 대표되는 자동차 이용의 편리성과 철도역에 접근해야만 하는 불편함의 대비는 앞으로의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철도산업 경영의 문제로 남아있다.

철도는 환경친화성, 안전성, 정시성, 대량수송력 면에서 다른 교통수단보다 현재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철도의 이익과 함께 우리민중에게는 통일시대 대비와 그 이후의 동북아시아 정치력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이 있다. 철도산업은 이 역할로 가는 길에서 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박윤석 객원기자(농학 석사과정) simon6903@dongguk.edu

### 중앙도서관 신착도서



장외인간 1, 2  
이외수 지음  
해냄출판사, 2005

달이 사라진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달이 사라진다면, 달이 있었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면, 달을 기억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 자신뿐이라면... 이 작품은 이 시대 마지막 기인이라고 칭해지는 이외수의 3년만의 장편소설로, 돈이 피보다 진한 이 시대를 '달이 실종된 시대'로 형상화하였다.

장외인간은 그런 물질만능주의로 둘러싸인 이 세상에서 달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감성의 아웃사이더를 말한다. 현대인들의 소외와 방황, 정신적 공황을 예리한 필치로 그린 작품. 작가는 '빛을 간직한 자, 그대가 장외인간이다'라고 선언한다.



한권으로 읽는 복유립 신화 이야기  
조지 웹브 님스트 지음 / 이은정 옮김  
자음과모음, 2005

복유립신화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전해 내려오는 신화를 말한다. 그리고 '지프리트', '반지의 제왕', '나그나르크' 등의 이름으로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대에서 세대로 계승되는 고대신화를 보존하고 있으며, 흥미진진한 마법, 미스터리며 극적 요소들이 가득 있어 하나하나 옛날이야기를 읽는 기분으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교양으로 읽어야 할 절대지식 : 세계명작편  
가메오마 이쿠모 등저 / 임희선 옮김  
이디미디어, 2005

이 책은 우리가 교양으로 읽어두어야 할 세계명작 226편을 엄선하여 핵심을 간추려놓은 책이다. 고대 그리스의 '일리아스'부터 현대의 '반지의 제왕'에 이르기까지 각 언어권의 문학을 연구하는 교수와 문학가들이 각 작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삶의 방식 및 작품속의 명문장을 해설한 자료로 국가별, 시대별로 명작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지침서로 볼 수 있다. 가려 뽑은 세계문학전집의 안내서라고 하면 적당할 듯. 다만 아시아의 작품이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지만, 일본과 중국편은 각기 따로 한권의 책으로 나올 예정이다. 고전편과 함께 읽는다면 금상첨화일 듯.



유령 인명구조대  
디카노 가스카키 지음 / 박재현 옮김  
랜덤하우스중앙, 2005

고립무원의 절벽, 각각의 이유로 자살한 후 유령이 된 4인조 앞에 홀연히 신이 나타나 소중한 목숨을 버린 이들을 책망하며 49일간 100명의 자살자를 도우라는 명령을 내린다. 저자는 자살에 관한 방대한 문헌조사와 함께 우울증이나 인격 장애 등에 대한 성실한 취재를 바탕으로 자살의 심리에 대한 소설적 처방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최근 자살은 심각한 수준이다. 20~30대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이며, 평균 48분에 1명이 자살한다고 한다. 9월 10일 세계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에서 '생명지킴기 7대선언'을 선포하였다. 절박한 최후에 몰린 사람들에게 이 소설의 주인공 같은 수호천사가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도서관 이용 팁

도서관 이용, 100% 하고 있나요?  
 지난 학기 중앙도서관 통계를 보면 출입인원이 총 161만 9천 697명, 대출은 16만 7천 259권에 달하고 있어 이용이 무척 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모든 시설이나 서비스를 충분히 알고 이용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에 도서관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문의가 많은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합니다.

#### ◆ 필요한 자료가 학교에 없는 경우

희망도서를 신청하세요.  
 수업에 필요한 도서 혹은 개인이 읽고 싶은 자료도 도서관에 비치되어있지 않을 경우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도서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구입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해주는 제도입니다. 희망도서는 매주 1회 주문을 내며 처리상황은 개인정보란에 표시됩니다.

객관식 문제집, 만화, 판타지, 기타 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한 제본의 도서 등 몇 가지는 제외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 로그인 → My Library → 자료 구입신청 → 필요사항입력 → 자료 구입 → 회신 → 자료이용

자료제공=중앙도서관

# 얼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 · 재보 : dgupress@dongguk.edu

## 교생실습체험기

### ‘삶의 의미’ 느낀 소중한 시간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교생실습은 일종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든다. 되돌아보면 한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고 그래서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이론으로 접했던 것들을 실제로 비교하면서 나름대로의 교사상을 세워보는 시간이 되었다.

나는 모교인 구리 인창고등학교 교로 교육실습을 다녀왔다.

“요즘 학생들, 예전 같지 않다”, “고등학생은 아마 다루기 힘들 것이다” 라는 주변의 우려 섞인 말에도 나는 후배들을 만난다는 것이 마냥 설레고 기다려지지만 했다. 나는 2학년을 맡게 되었고, 과학과 선택과목인 ‘물리 I’을 가르치게 되었다. 많은 수업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교육실습 전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에게 주어진 수업은 6시간에 불과했다.

학교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실제 수업을 못 해본 나로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실험 수업과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쳐 봄으로써 나름대로 그 아쉬움을 달래며 가르치는 연습의 기회를 가졌다.

여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리를 가르쳐 주었다.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면, 그 문제를 함께 풀며 왜 이것이 답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여기서 느낀 것은 아이들이 모른다고 묻는 문제는 그 아이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대부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많은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해줄 수밖에 없었다. 분명히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교과내용이 학생들의 선수학습 수준보다 너무 어려워져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던가, 아니면 교사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던가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에서 후자에 대하여 내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교사는 본시 수업에 앞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준비도’를 체크해야 한다.

이 말은 학생들이 본시 수업 내용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수학습에 대한 진단과 보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업에 하는 데 있어서는 수업 중간 중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통하여 이해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이론을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소개해 준다든지, 그 이론의 적용의 예를 들어 주는 것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주의 집중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나는 학생들이 물리 이론을 비교적 이해하기 쉽도록, 나름대로 실생활과 관련지어 설명해 주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는지 미처 알기도 전에 교육실습이 끝나버려서 많이 아쉬울 따름이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이’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 달 동안의 교생실습을 통해 선생님들과 학생들, 또 다른 교생들로부터 나는 그런 의미를 느껴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교사가 되어 나의 학생들에게 그런 ‘어떤 이’가 되길 바라게 되었다. 한 달간의 교육실습을 난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한 달의 짧은 시간으로 많은 것을 배우기엔 부족했던 시간이었지만, 내 삶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조철연(이과대 물리4)

##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 또한 나를 위해
- 함께 즐겁고
- 함께 슬픔을
-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 함께 부자가 되고
- 함께 행복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 자 우리모두
- 행복한 삶을 위해
- 내 몸안에 있는
- 게으름의 때를
- 모두
- 벗겨 버리고
- 부지런히
- 함께 살아갑시다

이형준(중앙도서관 수위실)

## 동국 회노애락



▲ 해화 전문 교사



▲ 해화 전문학교의 요람



▲ 당시의 수업 시간표



▲ 불교전수학교 학생들의 등교모습



▲ 불교전수학교의 교사

### ② 2번의 폐교를 딛고 일어난다

일제치하에서 끊임없이 강해지는 내외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들은 불교정신의 개혁자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갔다. 1915년에는 중앙학림으로 개칭하여 불교혁신운동을 지속시켰다. 그러나 3·1운동을 주도한 사유로 1922년 9월 30일 강제폐교된다.

한편, 불교계는 조선불교 선교양종 중앙교무원으로 통합된다. 통합된 불교계는 본격적인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그러나 일제가 이를 그냥 놔두지 않았

다. 처음에는 불교전수학교로 허가됐으나, 불교계와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1930년 중앙 불교전문학교로 승격 개편됐다.

1940년에는 해화전문학교로 개칭된다. 일제치하에서 우리 선배들은 여러 가지 사회활동과 장학활동을 계속했고, 그 때문에 많은 선배들이 투옥되고 강제 징집되어야 했다.

하지만 결국 일제 말기인 1944년 5월 해화전문학교는 강제 폐교되고 만다.

# 허리케인에 드러난 미국의 참모습

## 논단

이창복  
평화통일시민연대 정책실장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를 휩쓸고 간 후 거의 유령의 도시처럼 돼버린 뉴올리언스와 비참한 이재민들의 모습은 초강대국 미국의 이미지를 흔들고 있다.

자연재해에 대한 무방비, 극빈층 흑인, 인종간 불평등, 뒤늦은 구호활동, 약탈 행위... 세계의 경철을 자처하는 미국의 또 다른 어두운 얼굴을 저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외국의 모 신문에 의하면 “문제가 많은 나라의 숨겨진 본질을 폭로했다”며 “미디어의 예쁜 화장으로 가려졌던 빈곤, 인종차별, 이데올로기 투쟁, 공공 부패, 환경 오염 등 미국의 상처가 이제 또렷하게 드러났다”고 보도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가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에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나섰고, 전통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쿠바와 베네수엘라도 미국에 지원 의사를 밝힌 상황이 되어 버렸다.

미국 뉴올리언스를 집어삼킨 허리케인은 수많은 희생자와 함께 몇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남겨 놓았다.

하나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교토 의정서 비준을 거부해 온 미국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재앙의 부메랑을 정통으로 맞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겹뿔하면 인권을 빌미로 전쟁을 벌이거나 미국식 민주주의를 설팬해 왔던 미국 자신의 체제모순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라크 등 세계 다른 지역에서 질서를 되찾겠다고 하는 나라가 국내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부시행정부는 이라크전이라는 진창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뉴올리언스 제방의 보수에는 투자할 예산이 없었으며,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죽음을 기다렸던 주민들 곁에 있어야 할 군병력의 상당수는 이라크 학살전쟁에 차출되고 없었다.

또 한 가지는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자처하고 가장 부자 나라인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극심한 인종주의와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이고 자본주의의 본산

인 미국은 그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단도 함께 안고 있는 모순 많은 국가이며, 법적으로는 60년대에 폐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업이나 사회 승진에서 여전히 차별이 남아있고, 실질적인 사회 통합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라는 것이다. 라이스 국무부장관과 같은 사례는 일부 개인의 성공 케이스일 뿐이지 집단적인 상황과는 별개이다.

또 한 가지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휩쓸고 지나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도시에 1일 중 무장한 군인들이 탄 커다란 장갑차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수해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수해로 무방비 상태가 된 도시를 약탈하는 도둑들을 잡으러 온 것이다.

수해로 아버지규에 빠진 미국 사회, 우리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 같은도 할 수 없는 풍경이다.

지난해 여름 강원도에 큰 수해가 나자 국민들은 성금을 모았고, 어떤 이들은 구호를 돕겠다고 스스로 자원봉사자가 되어 재난 지역으로 갔다. 현지에서 빈 상점에 대한 약탈이 있었다는 뉴스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아메리카드림의 허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쓸쓸한 사건이었다.

## 보리소

### 죄수의 등불

지난 8월 29일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1차분 명단’이 발표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이룬 성과인 만큼 사회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고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은 인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찬반 논란과 선정 기준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다. 그런데 요즘 사회 일각에서는 정작 친일인사의 행적에 대해 냉정하게 비판하기보다는 “그럼, 친일인사명단 만든 너희는 얼마나 깨끗했는가”라는 뜻밖의 힐난이 생각 외로 강하게 일고 있다.

명단에 들어간 인사들의 막강한 후손들이 물 흐리기 작전을 하는 거라며 아예 무시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하지만 그런 힐난이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시끄럽게 논쟁거리만 만들어내는 데에 신물이 난다는 사람들의 “너나 잘하세요”라는 식의 빈정거림인 것이 큰 문제이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그 시대의 선구자요 스승이었다면 오늘날 고난으로 얼룩진 그들을 위로하고 명예를 되찾아주며 그릇된 영광을 누리던 자들을 단죄하는 이들은 현 시대의 스승이라 할 수 있다.

“스승은 곧 사람의 모범인데 모범이 되는 자에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지혜가 넓고도 활달하며 행위가 굳고도 곧은 것이 마치 밀실에 밝혀둔 불빛의 줄기가 창틈을 곧게 꿰뚫고 나가는 듯 하는 자이며, 다른 하나는 견해는 비록 험히 밝으나 자기 행위에 티끌을 숨기고 있으니 마치 죄를 범한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길을 비춰 주는 듯 하는 자이다.” <치문경훈>

역사를 바로 세우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모두 첫 번째에 해당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최소한 등불을 들고 어두운 길을 비추는 죄수의 심정이라도 지난 이가 스승이 된다면 이 사회에 차오르는 냉소는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 미령  
역경원 연구원



## 독자 사진첩



자전거대행진 지난 9월 6.15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유민지·사회4)가 팔정도부터 삼각지까지 자전거대행진을 했습니다. - 6.15 공동대책위

###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4매 분량의 글을 여론면에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edu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독자의 관심은 발로 댄 기사 이미지의 적절한 활용이 가독률 제고

취재면의 Top을 정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고민이 아닐까한다. 주간 단위 매체의 경우 시의성도 있어야 하고 일주일간 생명력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내 구성원의 관심사인 동국관 공간 재배치를 Top으로 처리한 것은 적절한 선택인 듯하다. 다만 사진의 비중이 너무 낮아 이미지의 효과는 기대한 것보다 미흡했다. 배치도를 같이 삽입했으면 어땠을까. 독자들의 관심은 공사지역의 문제보다는 공간 변화에 따른 이용에 더 관심을 가질 듯 하다. 편집의 측면에서 보면 우측하단의 사진(노트를 나누어주는 장면)에 시선이 쏠려 보도기사에 첫 시선을 주지 못하는 점도 옥에 티라 하겠다.

기획취재면의 ‘통일운동의 과거와 현재’는 발로 댄 기사라는 느낌이 든다. 좋은 기사는 현장에 있고 이것이 학생 기자의 기본 소양이다. 현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참가자의 후기를 박스로 넣었으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신규교수 소개지면에서도 부드러운 표정의 사진이었더라면 특집면을 더 돋보이게 했을 것이다. 신문이 잡지화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미지의 적절한 활용이 가독률을 높이는 효과를 동반한다. 특히 높아진 독자의 눈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얼린 글터의 소재목인 ‘방중 다양한 국내외...’가 글바탕이 연한 탓에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동국 회노애락은 교사(敎師)자료를 소개하여 100주년의 의의를 되새기는 좋은 기획이라 생각한다. 다음에는 기사 비중을 좀더 높이면 좋겠다.

문화기획의 DMB관련 기사에 우리학교의 콘텐츠 개발 등 서비스 계획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전반적으로 2학기 개강호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하다. 방학 동안에 내공을 쌓은 기자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수업과 기사마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자들의 노고에 건투를 빈다.

박세훈(교수학습개발센터 과장)

##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9/12)	손만두국 (2000)	삼산적구이백반 (2000)	원장찌개 (3200)
	두부김치 (2000)	오징어볶음 (2000)	떡김치찌개 (3500)
	낙지콩나물비빔밥 (2000)	닭고치구이 (2000)	버섯불고기 (3800)
화 (9/13)	사골우거지탕 (1800)	김치탕 (2000)	원장찌개 (3200)
	닭도리탕 (2000)	쇠고기볶음밥 (1800)	쇠고기버섯전골 (3500)
	잡채밥 (2000)	비빔밥&떡볶이 (2000)	오징어달걀 (3500)
수 (9/14)	콩나물국밥 (1800)	만두육개장 (2000)	원장찌개 (3200)
	오징어떡볶음 (2000)	제육콩나물볶음 (2000)	우거지김치비빔 (4000)
	하이리이스 (2000)	생선기&순두부찌개 (2000)	새싹비빔밥 (3500)
목 (9/15)	양지탕 (2000)	짬뽕국밥 (1800)	원장찌개 (3200)
	치즈볶음밥 (2000)	닭조림 (2000)	손만두국 (3500)
	제육볶음 (2000)	참치김치달걀 (2000)	황태구이 (3800)
금 (9/16)	닭개장 (2000)	풀면사리부대찌개 (1800)	원장찌개 (3200)
	리조육 (2000)	김치장밥 (2000)	콩나물들국밥 (3500)
	계란말이백반 (2000)	제육오징어불고기 (2000)	코다리무조림 (3500)

예비 동국인들(2006학년도 수시 1학기 합격생)을 만나다

“100주년에 입학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설레요”

다른 학생들보다 한 학기 먼저 대학 캠퍼스의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이 있다. 지난달 우리학교 2006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에 합격생들이 바로 그들이다. 오늘의 만남을 위해 앞으로 모교가 될 학교를 찾아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렘'이 앞섰다는 그들.

건학 100주년동이가 될 예비 동국인들을 만나 '파릇파릇'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수시 합격 이후 학교에 처음 오는데, 느낌이 어떤지.

**조용현(이하 조)**= 시험을 보기 위해 왔을 때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오늘 와서 캠퍼스 이곳, 저곳을 돌아보니 언덕이 너무 높아서 올라올 때 다리가 조금 아팠다. 그리고 다른 대학들에 비해 건물이 뽀뽀하게 자리 잡고 있어 답답한 느낌도 들었다.

**임보미(이하 임)**= 언덕이 높아 올라갈 때는 조금 힘들었지만 학교에 도착해 선배 언니, 오빠들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빨리 대학생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앞선다.

▲고등학생들이 생각하는 '동국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지.

**조**= '동국대' 하면 무엇보다 연극영화학과와 경찰행정학과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다. 이러한 특성화된 학과로 인해 전반적으로 학교의 이미지가 올라가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임**= 맞다. 동국대를 생각하면 연극영화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이미 졸업한 유명 연예인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이러한 점을 부러워하곤 할 때에는 은근히 자랑스럽기도 할 때가 있다.

**한지현(이하 한)**= 반면에 동국대는 불교대학이라는 점



임보미(독어독문학과 합격)



조용현(사회과학부 합격)



한지현(산림자원학과 합격)

과 '삼국대' 중 하나라는 인식이 큰 것 같다. 일부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은 삼국대는 피해서 가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은 학생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불교종립 대학이라고 해서 학교의 선택을 꺼려하는 학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가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임**= 수시모집에 합격한 이후 학교가 내년에 건학 100주년을 맞이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 다니게 됐다는 점이 뿌듯하게 느껴진다.

**조**= 집 근처에 고려대가 있어서 얼마 전 고려대의 100주년 기념 콘서트를 구경하기 위해 찾아간 적이 있다. 우리가 입학하는 시기에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될 생각을 하니 많은 기대가 된다.

**한**= 그동안은 동국대에서 개최하는 큰 규모의 외부적인 행사를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다. 내년에는 100주년을 기념해 대외적인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개최됐으면

한다. ▲예비 대학생으로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임**= 대학에 오면 꼭 한번 장학금을 타보고 싶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유로운 취미 생활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이라고 생각한다. 남학생이라서 그런지 은근하게 대학생활 중 동기, 선·후배들과 여유롭게 마실 수 있는 술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생활에 더해 이번에 학부생으로 들어온 만큼 성격에도 신경을 써서 원하는 학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 현재 산림자원학과로 입학하게 됐지만 복수전공이나 연계전공을 통해 디자인 분야를 공부해 볼 생각이 다. 주전공과 복수전공을 잘 조화시켜서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은 꿈이 있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정태섭 교수의 역사 속 인물이야기



정약용(1762~1836)

시대의 아픔 읽은 열정의 '빠꿈이'

조선 후기를 살았던 다산 정약용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바라보면 어떤 인물상으로 비쳐질까. 어느 시대이건 그 시대의 문제에 가장 진지했던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다. 조선후기는 대중적으로 인기없는 시대이다. 당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지주-전호제'의 극대화된 모순 때문에 사회가 분열하고 국가의 존립기반조차 무너지던 시대이다. 국가는 더 이상 백성과 나라를 끌고 나갈 기력도 비전도 상실한 지 오래였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시의 일부 뜻있는 학자들은 당대의 모순을 해결하고 우리 국가와 민족이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에 필사적이었다. 그러한 노력들이 훗날 '조선후기의 실학'으로 불리우는 새로운 학문사조로 정립하였던 것이다.

정약용이 조선 실학의 최고봉임은 주지의 사실로, 그에 대한 연구도 '한우충동'을 일컬을만큼 아주 많다. 그렇게 유명한 정약용에 대해서 본고와 같이 짧은 글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주저하면서도 꼭 전하고 싶은 대목이 있었기에 본고의 주제로 삼았다. 정약용은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주자학에 대신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주장한 것과 더불어 당시 중국의 최신 학문이었던 고증학의 대가였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이러한 학문 사상적 바탕 위에서 매우 실천적이며 실용성을 극도로 중시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개혁안을 제안하였다. 그 중에서도 개혁사상가로서의 정약용의 진면목은 '정전제'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즉 현대어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여 토지공유제를 실현하자는 토지제도 개혁론을 주장한 일련의 글에서 볼 수 있다.

필자는 다산 정약용을 읽으면서 고상하고 품격높은 글에서보다는 오히려 현실의 세태에 대해서 알미를 정도로 꿰뚫고 있는 '빠꿈이' 적인 모습에서 진한 감동을 받았다. 조선 후기 국가와 사회의 기강이 무너져서, 힘있는 자들은 갖가지 탈법과 편법으로 국가에 내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그 부담을 전호(소작인)에게 떠넘기기 일쑤여서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모순은 극에 달했다. 정약용은 가진자들의 조세 포탈 수법에 대해서 정통하였다. 지주의 조세포탈은 국가재정을 열악하게 만들며 전호계층을 기아상태로 떨어뜨려서 사회를 분열시켰고 이윽고 조선왕조가 멸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정약용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탈세수법을 조사하고 고발하였다. 조선의 점잖은 선비가 어찌 그다지도 세태에 밝을 수 있었던가. 그로 하여금 '빠꿈이'가 되도록 만든 것은 다름아닌 현실을 아프게 여기는 마음과 그것을 고쳐보겠다는 열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의 부동산 투기 방지책을 둘러싼 논쟁을 보고있노라면 새삼 고심하는 정약용의 모습이 떠오른다.

인물동정

법무부 차관에 김희옥 동문



우리학교 김희옥(법학 72졸) 동문이 지난 6일 법무차관으로 선임됐다. 김 동문은 우리학교를 졸업한 후 1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며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대구고검차장검사,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의 검찰직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바 있다.

이번 임명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김 동문은 형사소송 분야의 전문가로 서울

동부지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안정적 조직관리 능력과 업무 수행능력이 뛰어나 임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택근 동문 '미디어칸' 대표



지난 7일 우리학교 김택근(국문 79졸) 동문이 인터넷 경향신문 '미디어칸'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번에 선임된 김택근 동문은 경향신문 출판본부장과 출판본부 기획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선배를 만나다

포기를 모르는 열정으로 일궈낸 값진 '선물'



전기자동차 개발에 성공한 이정용(불교미술 85졸) 동문

어린 시절 과학 상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기 자동차. 상상인 줄로만 알았던 어린 시절 꿈을 이뤄준 사람이 있다. 국내 최초로 시속 250km까지 달릴 수 있는 전기자동차 개발에 성공한 GEO EV1 개발소장, 이정용 동문이 바로 그이다. 이번

에 개발된 전기 자동차는 일반 가정용 콘센트에서 3.4시간 정도 충전한 배터리로 운행이 가능하며, 기존의 전기가 토양, 수질 오염을 일으켰던 것에 반해 간단하게 소금물에 담가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친환경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무공해 자동차라고 하니 신봉방통하기까지 하다.

"어릴 때부터 락커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대학

때에는 머리를 기르고 밴드생활을 하며, '대학가요제' 예선에도 합격했지요." 초등학교 때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해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그룹사운드를 결성할 만큼 음악에 흥미와 재능을 가졌던 이 동문. 하지만 그는 대학 시절 음악, 심지어 지금의 자동차 개발과도 전혀 관련이 없을 법한 불교 미술학을 전공했다. 특히 불교 미술 중 '탱화'에 남다른 매력을 느꼈지만, 컴퓨터 그래픽을 시작하게 되면서 자동차의 매력에 빠져 결국 연구자의 길을 택하게 됐다.

전기자동차 개발을 위해 3개월간 대부분의 밤을 뜬 눈으로 새어 아 했던 이 동문이 직원들과 별 탈 없이 개발에 전념할 수 있었던 그만의 비결이 있다.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한 팀,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100일 만에 전기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 가지 일에 빠지면 쉽게 손을 놓을 줄 모르는 그의 '고집' 역시 크게 작용했다.

그 누구보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삶을 살아온 이 동문. 지금 그의 눈동자에서 강단에 서 있는 새로운 삶이 보이는 듯하다. "학생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지금도 다시 학생에게 돌아가고 싶지

만, 시간이 여의치 않네요." 최근까지 단국대 '패션제품디자인과' 겸임 교수로 활동했던 이 동문은 실력을 늘여가는 제자를 볼 때가 가장 뿌듯하다고 한다. 후배들과 같이 생활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 좋을 것 같으며 내심 우리 학교에 관련 학과가 개설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한다.

항상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매진하면서 나이를 잊은 채 살아가는 이정용 동문. 개발은 목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의 눈빛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힘찬 '도전'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제2회 환경영화제 개막

심각한 지구문제 함께 고민하는 자리

소비적·화려한 개막식 눈살 찌푸려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을 이용한 풍요로운 삶을 누려왔고, 가끔은 인간 마음대로 자연을 조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쓰나미'와 '카트리나' 같은 성난 자연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8일 열린 환경영화제 개막식에 등장한 '땅이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한 것'이라는 말은 인간이 자칫 망각할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의 근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지난해에 이어 환경운동의 문화적 지평을 넓히고자 마련된 제2회 환경영화제가 오는 14일까지 씨네큐브, 스타식스정 등 5, 6관, 서울역사박물관 등에서 열려, 전 세계 34개국, 114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중무로 스카라 극장에서 열린 환경영화제 개막식은 다소 성대하게 치러졌다. 환경부장관 및 국회의원, 다수의 영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그맨 박수홍과 가수 엄정화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최열 집행위원장은 "환경영화제를 통해 환경운동이 더욱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며 개막 선언을 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영화배우 안성기씨는 이번 영화제 개최와 관련해 "환경오염으로 미래가 불안한 지금, 이번 영화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깨닫고 자연의 경고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색없고 준비성 없이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 아래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영화제는 특히 개막작 '키아로스타미의 길'의 감독인 이란의 거장 '압바스 키아로스타미'가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영화제 주최인 환경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된 32분짜리 단편영화 '키아로스타미의 길'은 감독이 직접 찍은 길의 사진과 감독의 독백으로 이뤄진 흑백영화이다. 이번 환경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다큐멘터리 영화 '송환'의 김동원 감독은 영화를 보고 난 후 "감독 자신의 이야기면서도 평화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냈다"며 "샘나도록 잘 만든 작품"이라고 소감을 일축했다.

이번 환경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영화

제가 열리는 극장 주변에서 환경과 관련한 부대행사도 많이 벌어진다.

그래 관련 토크 및 사진을 전시, 친환경 먹거리와 요리법 소개,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퍼포먼스·토크·대체에너지 전시 등이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을 주축으로 열린다.

이렇듯 환경과 관련한 문화활동을 펼치는 이번 축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일반적이지만 관객들에게는 아쉬운 점도 눈에 띈다.

먼저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열린 문화행사에도 불구하고 다소 소비적이고 화려했다는 것이다. 개막식을 관람한 한 관객은 "굳이 환경영화제까지 다른 영화제들의 화려함을 따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또한 재야에서 묵묵히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순보다 각종 '감투'를 쓴 사람들을 더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점도 씁쓸함을 남긴다.

지난 1회 환경영화제도 준비 및 진행 측면에서 환경운동과 다소 거리감이 있었다는 세간의 지적을 받았다. 그러한 면에서 여러 환경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환경운동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영화제 진행과 구성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해 사람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메아리

과유불급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당장 뛰어내리겠어." 한 남자가 한강 다리 위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자신의 사랑을 고구하고 있다. 죽을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그의 눈빛과 표정은 그녀를 향한 '진실함'이 가득하다. 하지만 정작 그런 그를 지켜보는 시민들과 그녀의 눈에는 그의 진심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극단적인 말과 행동에서 불안감과 공포심이 앞설 뿐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 개편과 이에 따른 야당과의 연정정치에 대통령으로서의 '생명'을 걸겠다고 한다. 자신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권력이양, 임기단축에 이어 급기야 '사임'까지 하겠다고 나선 노 대통령의 '진심'은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그의 발언 이후 일부 신문들에서는 노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보도단체들의 의견광고를 줄줄이 게재되고 있다. 이를 지켜보고 있다면, 지난해 탄핵 사태가 또 한번 재현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불

안함을 넘어 섬뜩함마저 느껴진다.

▲대통령의 발언이 그의 진실성에서 비롯된 것임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충격요법은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분할정치의 청산이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목숨'까지 걸기에는 아직도 남은 숙제들이 너무 많이 산적해 있지 않은가.

▲난간에 매달려 있는 그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녀 역시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진심을 넘어선 '협박'에 당황하고 두려워할 뿐이다. 국민들 역시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을 넘어선 지나친 발언은 오히려 '협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의 발언으로 인해 그 이면에 감춰진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가려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미래 연극인들의 열정 가득한 무대

연극학과 워크샵공연 열려 ... 긴 공연시간 다소 지루해

LCD화면에 익숙해져 있는 요즘 젊은 세대에게 배우의 입김이 전해오는 연극이라는 장르는 다소 생소하게 다가온다. 더욱이 영화, TV보다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적은 것은 관객들로 하여금 연극을 더욱 '멀게만' 느껴지게 한다.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학교 안에서 매우 질 높은 연극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오는 14일까지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리는 '제419회 하계 워크샵 공연 4plays'가 그것이다. '오장군의 발톱', '소', '로미오와 줄리엣', '리어왕'의 네 가지 연극으로 꾸러진 이번 연극제는 연극학과 2, 3학년 학생들이 방학내내 준비한 것을 보여주는 자리다.

특히 지난 7일부터 사흘간 공연된 셰익스피어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은 현대적인 시각

으로 각색해 신선함을 더했다. 연출을 맡은 하경민(연극4)군은 "평소 하고 싶었던 작품으로서 옛날의 사랑이 오늘날의 사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담아내려 했다"고 말했다. 주연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더불어 조연들의 감초 역할과 감칠맛 나는 대사는 관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평범한 소품 사용과 적은 음향효과, 무대의 비효율적 공간 활용 등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이 날 연극을 관람한 김우연(영신여고3) 양은 "연극영화과를 지망하는 수험생으로서 연극을 관람하러 왔다"며 "배우들의 연기력은 좋았지만 3시간 가량의 긴 공연이 지루했고 마무리 부분의 전개가 너무 빨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공연제는 오늘부터 3일간 혈육간의 갈등을 통해 인간 세계의 부조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 '리어왕'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개장과 함께 시작된 가을. 학내 구성원들이 준비한 알찬 연극 한 편을 관람함으로써 풍성한 2학기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무대 위의 삶'을 꿈꾸는 아마추어 연극인들의 여름 태양보다 뜨거운 열정을 느껴보도록 하자.

〈명〉 brightah@dongguk.edu



내가 좋아하는 문화예술인



가수 신해철

김병열 시과대 신남4

문화예술에 관한 내 전문적인 지식은 중·고등학교 시절 성적이라는 압박에 시달리며 겨우겨우 유지한 것이 전부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내가 어느 특정 문화예술인을 좋아하는 데에는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그'부터가 어느 한 곳에 한정시킬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가 아는 그는 그랬다. 팬들에게 마왕이자 교주로 불리며, 팬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진취적 음악인

이 아닌 다른 누구라도 그 카리스마를 부정할 수 없는 사람. 바로 가수 신해철이다.

그는 1988년 대학가요제에 무한계도라는 락그룹으로 참가해 '그대에게'란 노래로 대상을 수상하며 데뷔했다. 이후 잠시 솔로활동을 펼치다 90년대 한국 락 음악계에 한 축이었던 그룹 N.E.X.T를 거쳐 모노코롬(1999)과 비트퀘스타임(2000), 다시 넥스트(2004)로 이어지는 행보를 보여 왔으며, 최근에는 '고스트네이션'이라는 이름의 라디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비전문가인 내가 이 자리에서 신해철에 대한 음악적 평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보다 나는 '신해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힘'에 대해 말하고 싶다.

사실 그는 키가 매우 작아 항상 콤플렉스가 있었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최고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음악을 함과 동시에 영어 원서에서부터 만화책까지 잡히는 책은 모두 읽었고, 결국 정치·사회·문화·역사 어느 부분에서도 빠지지 않는 잡학박사가 됐다. 물론 내가 그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폭넓은 지식 때문

이 아니다. 그가 지식을 바탕으로 걸출한 입담을 풀어내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 망설임이 없기 때문이다.

심야시간대에 자기색깔의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대선 때에는 노무현 후보 측의 선거운동에도 참여했다. 또한 학교체벌에 반대하는 카페를 개설하고, 락 공연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항상 뛰었다. 어쩌면 그러한 점이 그가 카리스마를 갖고 많은 사람을 매혹하는 힘이 됐지도 모르겠다.

신해철은 자신과 어긋나는 것에 대해 거침없이 독설을 내뱉고, 반말이 난무하는 격의 없는 방송진행으로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듣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진보적인 생각과 돌출적인 행동은 노래 없이 춤만 추는 가수들과 국어책 읽는 열광 연기자들이 가득한 요즘의 자국제가 될 수 있다. 우리와 동시대에 자신만의 신념을 갖고 성과 마약·남녀평등·학교체벌·동물보호 등을 논하는 신해철이라는 '교주'가 살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까 싶다.

**가을 어학특강 개강**

원어인 영어강좌

강좌	주 4일반			주 3일반			주2일반
	Beginners	Intermediate	Advanced	Interview & Presentation Skills	회화 I 단계 다양한 주제에 대한 표현구사 가능	회화 II 단계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능	회화 III 단계 고급영어 사용자
인원	각반 15명						
수강료	85,000						
1타입 9:00 - 9:50 주 4일 (휴강일)							
2타입 10:00 - 10:50 주 4일 (휴강일)							
3타입 6:00 - 7:20 (수업일)							

중국어 및 토익

강좌	중국어		TOEIC 21
	중국어 대장정 (초,중급) 9/20~10/1 (월~토)	고급 (월~금) 9/20~30	
인원	각반 25명		별지 홍보
수강료	130,000	65,000	
1타입	16:30 - 18:00		
2타입	18:10 - 22:30 (토: 9:00 - 17:00)		

접수기간: 9월 9일(금) - 9월 15일(목)  
 강의기간: 9월 20(월) - 10월 21일(금)  
 (중국어 및 토익은 별도 일정)  
 문의전화: 2260-3590/3471  
 근무시간: 오전 9:00 ~ 오후 5:00  
 http://ie.dongguk.edu ie@dongguk.edu  
 방문접수: 신청-은행수납  
 이메일접수: 이메일(신청강좌, 이름, 학과, 학번, 전화번호 표기) - 은행송금(본인이름)

\* 수강료납부: (조회)371-03-011192(Korean Program)  
 \* 수강료 납부 마감: 9/16일 오전

**국제교육원**

생활속의 든든한 벗  
 생협학생위원회와 함께하는

**2005 한가위 한마당**

민속놀이 대회 [15일 12시]

- 대형 윷놀이(6인1조 참가), 우승팀에 컴퓨터 본체 증정
- 팔씨름대회(남/녀 개인참가)
- 1등: 문화상품권 5만원권, 2등: 문화상품권 3만원권
- 줄다리기(남10+여10, 20인 1조 참가), 선착순 8팀
- 1등: 식권 100장, 2등: 50장, 3등: 30장

상설놀이 마당 [15일 11시]

- 팔정도 주변에서 널뛰기, 제기차기, 투호 등 민속놀이 마당이 펼쳐지며, 우리차와 전집, 꿀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추억의 보물찾기 [15일 오전중]

- 팔정도 주변에 숨겨진 100개의 보물(평:29개 포함)을 찾으면 생협매장 상품권을 드립니다.
- 상품법칙: 다량관 입대매장(언경점,잡화점,거희사,사진관,컴퓨터매장)

신청문의: 다량관 생협학생위원회, 학생 복지위원회 2260-3590  
 문의처: 생협부서 010-3925-1180

대학생활의 든든한 동반자 **동국대학교 생협 학생위원회**

**동국대학교 용인 동문회 창립총회 안내**

동국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도시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국대학교 동문이 무려 1천여 명이라는 사실이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모교 동국의 정신적 공관대인 불교에서는 웃김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합니다만 사회에서 동문인으로 다시 만남은 그 자체로서 즐겁고 행복한 유타리입니다.  
 용인을 머리에 이고 이웃으로 함께 살고 있는 우리는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말처럼 '동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12일 수지의 한 음식점에서 40여명의 선배 동문들이 참석 한가운데 발기모임을 갖고 '동국대학교 용인 동문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동문끼리 한자리에 모여 선우배간에 끈끈한 우정을 나누고 동국인의 자부심을 한껏 느껴봅시다.

창립총회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05년 9월29일(목) 오후 7시**  
**장소: 대법빌딩(Tel 031-263-4700 / 용인시 수지출장소 옆 수지농협 지하)**  
**회비: 9만원**  
 발기인회 간사: 동국대 대외협력처 신관호 (02-2260-3965/011-793-7749)  
 변호사: 오수환 (031-321-4066/011-373-9599)

\*자동차는 용인시 수지출장소에 주차하시면 됩니다(연료이용/18시 이후 무료)

**동국대학교 용인 동문회 발기인 일정**  
 대표 박 안 김

[발기인 명단]  
 이석용(92정지) 정대진(83법학) 신상우(84법학) 이장근(86농학) 조현철(88경협) 박민길(88정지) 윤길한(88정지) 이범일(88정지) 홍성욱(88석공) 김상화(88상학) 이도희(88상학) 고명주(70경협) 김성수(70경협) 장준영(70경협) 우대주(70경협) 이광구(70경협) 황영길(70경협) 김일희(72경협) 김원배(72연료공학) 신관호(73경제) 전병철(75경제) 장동락(77정지) 김선재(77체고) 유재성(79경제) 정민호(81토목) 명일순(83법학) 오수환(88법학) 김중진(88사회) 전민식(88사회) 김태현(88국고) 백낙현(88국고) 김명철(88법학) 오길원(91경협) 최정대(91경협) 이승복(92경협)



제대로 알고 하자 - 인턴십

# 진로 · 적성 토대로 지원해야

청년 실업률이 극심한 요즘, 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보다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턴십' 제도이다.

인턴십 제도는 외국에서 오래전부터 채용 방법의 하나로 자리잡아 왔다. 우리나라도 최근 인턴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구직자는 실무능력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기업은 검증된 거친 우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 정부 · 기업이 적극적 추진

국내 대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턴사원을 선발하고 있다. 재학생 · 휴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공고를 통한 서류 · 면접전형을 치러 선발하거나 기업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각종 공모전이나 해외탐방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을 선발하기도 한다.

IT분야의 경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주관하는 'IT분야 인턴십 확산지원사업' 및 각종 공모전 등을 통해 학생들이 인턴십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외국계 기업은 정규직 채용시 인턴 중에서 선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턴십을 통해 기업 내 인맥을 형성하면 두면 이후 정보를 얻는 데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다.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이 인력 채용시 사내 추천제나 헤드헌팅(head hunting : 고급 · 전문인력의 재취업이나 스카우트를 중개해 주는 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국내에서 눈을 돌려 해외에서 경력도 쌓고 어학도 할 수 있는 해외인턴십에 대한 관심도 높고 있다. 정부도 이와 관련한 예산을 점점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를 통해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공고는 수시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원 자격도 국가와 업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인턴십 대상자는 항공료, 체재비 일부, 출국관련 제반비용 등이 지원된다. 사실 인턴십 협력업체를 통해서도 해외인턴십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인턴십과 관련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통한 해외인턴십 사기, 원활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에 대한 구직자의 불만족, 부적응 등의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대우, 업무 환경 등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인턴도 전문인력' 인식 필요

이렇듯 인턴십에 대한 대학생들의 욕구가 늘어나자 대학들도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4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인 재학생이 신청가능하며, 선발된 학생은 기업에서 5개월간 연수한다. 연수기간동안 학점 혜택 및 매월 정부

지원금(30만원)과 학교지원금(30만원),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운영 또한 원활하지 않다. 실제 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한 학생은 "막상 기업에서 주는 업무는 일반 아르바이트생을 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또한 다른 학생은 "학점 15점을 인정해주지만 패스 제이기 때문에 전공과목 졸업확정 이수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며 "인턴십을 하고 싶지만 이후 졸업확정 채우는 것에 부담이 커 그만뒀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실제로 이번 학기에도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 11명 중 2명이 이러한 이유로 애초 시도도 못하고 포기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일을 하던 학생들도 업무나 대우에 대한 불만으로 그만두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취업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학과에서부터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인턴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 측에서도 인턴십을 단순한 '홍보용'이나 '간판 빌려주기' 식이 아닌 적극적인 인재발굴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제도적 차원에서의 보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다. 취업지원센터 조성환 계장은 "인턴십에 선발되는 데에 성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왜 자신이 인턴십을 해야 하는지 확실해야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다.

인턴십은 일반 사회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대



학생만의 특권이다. 이러한 특권을 잘 활용해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더욱 발휘하는 기회이자 실전 경험을 다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 취업성공기

### 학창시절 다양한 활동 통해 남들과 차별화



이 용 준  
2009년 국민은행 입사  
경제 05출

지난 3월부터 약 40여 곳에 원서를 냈습니다. 또한 4월부터 면접을 보기 시작해 약 10여 곳의 면접을 봤습니다. 저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통해 주로 저의 다양한 활동들을 부각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예컨대 학창시절의 교내 영자신문사 기자 활동과 카투사 군복무, 무역협회 파견 캐나다 인턴 근무, 팔레스타인 봉사활동 등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저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찾아다닐 수 있는 도전과 열정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 저는 스테디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영어회화 스테디를 했고 취업이 입학해서는 구직자들과 함께 '취업 스테디'를 조직해 토론 및 모의 면접 등을 통해 실전에 대비했습니다. 이러한 스테디는 그 자체가 도움도 되지만,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모티브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 더 소중했습니다.

흔히 금융권은 학점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은행부문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력을 갖춘 신입사원을 선발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기 위해 각종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은행은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입사한 후 동기들과 대화를 나누며, 취업이란 것이 결코 학벌과 학점, 토익과 자격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란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성공한 인사라고 말하는 것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자신의 '스펙(Specification)'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세태를 푸념하며 대부분이 토익과 학점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취업 전략을 마무리 합니다. 토익과 학점이 인사의 중요한 잣대임은 분명하지만 남들과 같은 전략으로 승부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10시까지 하던 공부부 11시까지 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블루오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화된 시장에서의 경쟁이 아닌 새로운 고객의 니즈와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블루오션! 저는 취업에도 학점과 토익의 레드오션이 아닌, 스스로의 경쟁력을 차별화해서 포지셔닝 할 수 있는 블루오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검색 2주간 인기검색어 검색

## 뱅크

위성사진 서비스 사이트인 구글어스(earth.google.com)가 동해 표기에 대해 세계에 한국을 바로 알리는 운동을 해 온 사이버외교사절단 뱅크(www.prkorea.com)의 지지를 받아 일본해 표기를 동해로 정정하자, 일본 네티즌들이 뱅크의 게시판에 '동해는 일본해다'와 같은 악의적인 글을 수천 건 올리고 구글측에 집단 항의 메일을 보냈다. 이를 보도한 인터넷 뉴스기사에는 일본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 김상경

드라마 '변호사들'에서 정의로운 변호사 서정호 역으로 출연했던 탤런트 김상경이 팬들 사이에서 '서변'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서변 페인'이라는 마니아팬들도 생겨났다. 또한 그는 드라마 홈페이지에 올린 팬들의 글에 일일이 답글을 달아주는 등 감동적인 팬서비스로 일간 배우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했다.

## 번뇌걸즈

일본에서 108명 멤버로 구성된 세계 초대형 그룹이 데뷔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불교의 '108번뇌'에서 그룹이름을 따온 번뇌걸즈는 대

형 프로덕션 소속의 모델들로 구성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멤버를 가진 그룹으로 기네스북에 신청 중이다. 번뇌걸즈는 오는 10월 데뷔를 앞두고 있다.

## 8·31 부동산 종합대책

정부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투기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지 2개월만인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은 미니신도시 건설, 모기지보험 도입, 거래세 인하,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강화, 토지공개념 중 개발부담금제 부활 등이다.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면서 관련 뉴스검색이 두드러지게 상승했고, 개편한 부동산 관련 세금 정보 검색이 증가했다.

## 베니스영화제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제62회 베니스국제영화제가 지난 31일 이탈리아 리도섬에서 개막했다. 경쟁부문 후보에 오른 영화 '친절한 금자씨'가 호평을 받으며 유력한 수상후보 중 하나로 떠올랐다는 소식에 많은 네티즌들이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정리=문화부  
출처=네이버, 연합뉴스

## 따면 좋을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요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영업 · 재무 · 생산 등에 대한 경영분석 및 데이터 관리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은 이를 원활히 하는 데에 필요한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이다.

등급은 1~3급까지 있으며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뉜다. 필기에 합격된 사람만이 실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1급 필기시험 과목은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이며, 실기 시험 과목은 △스프레드시트 실무 △데이터 베

이스 실무이다. 2급과 3급은 데이터베이스 관련 과목이 제외된다. 합격기준은 △필기=매 과목 100점 기준에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실기=70점 이상 취득하면 된다. 단 1급 응시자는 실기도 100점 만점에 매 과목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1년에 4회의 시험일정이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응시료는 △필기=8천 600원 △실기=1만 800원이다.

### 우리말 바로 알기

#### '머릿말' 과 '머리말'

"그는 책을 사면 우선 머릿말과 서문을 빨리 읽는다"는 문장에서 '머릿말'은 바로 쓴 단어가 아니다.

맞춤법에 있는 사이시옷 법칙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보면 합성명사 중 적어도 한 명사가 순 우리말이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는 사이시옷을 적는다고 규정돼있다. 때문에 '머리말'로 표기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하는 것이다.

#### '쌈살하다' 와 '쌘살하다'

흔히 '달콤 쌈살한 맛'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 '쌈살한'은 잘못된 표기다. 한글맞춤법 제13항에서는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쓱쓱쓱' ' 짹짹하다'와 같은 단어에도 적용이 되는데, '쌘살하다'도 소리가 겹쳐 나는 대로 같은 글자로 적는 것이 어법에 맞다.

출처=우리말 배움터